

창업교육의 대학교과과정 설계방향에 관한 연구

목영두¹, 최명길^{2*}

¹중앙대학교 대학원 창업학과

²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상경학부

A Study on Curriculum Desig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dergraduate School

Youngdu Mok¹ and Myeonggil Choi^{2*}

¹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요 약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잠재적인 창업가 육성은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설계를 위해 필요한 창업 교과목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대학에서 창업학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연구자 그룹과 현업에서 창업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 그룹을 두 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의 창업 교과과정을 공통기초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에 적합한 창업 교과목을 제시하고, 대학교의 창업 교육 과정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대학의 창업학 도입단계, 학과가 설치될 학부, 특성화 방향 등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jobless growth, the problem of employment is becoming an important social issue. Fostering potential entrepreneurs with systematic education can be an alternative for resolving the jobless growth problem.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entrepreneurship subjects which are needed for designing a curriculum of the systematic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is study develops a questionnaire based on prior researches, and executes the survey of two focused groups comprised with a group of researchers lecturing subjects related with entrepreneurship and a group of executing an entrepreneurship consulting.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applied to design and run the curriculum in the universities, which consider introducing stag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is study help a entrepreneurship department to bear the curriculum, and a direction of specialization.

Key Words :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iversities, Entrepreneurship Curriculum, Entrepreneurship Program, Entrepreneurial Learning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각종 규제를 풀어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1인 기업, 1인 지식 기업, 1인 창조기업 등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초가 튼실하지 않은 창업 활성화와 창업 지원책은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이 더 큰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인한 실패는 창업자 개

*교신저자 : 최명길(mgchoi@cau.ac.kr)

접수일 09년 8월 19일

수정일 (1차 09년 10월 15일, 2차 09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10년 01월 20일

인에게는 인생 실패의 한 단면이 되고, 국가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직무수행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5],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기질 또는 특성 이외에도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9].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규모를 떠나 장사가 아닌 사업화의 관점에서 창업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잠재적 창업가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학이 창업교육의 주체가 되어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한다면 잠재적인 창업가를 육성하고 관련 학문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창업교육은 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초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10].

창업교육을 '사회 인프라'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대학의 창업교육은 직업탐색의 과정이란 관점으로 검토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대학의 창업교육은 여타 다른 분야의 창업교육보다도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학 창업교육은 전임 교원, 교육 교재 등의 미흡으로 창업기초 과목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이며, 대학 창업교육의 교과과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3,11].

실증연구가 어려운 창업학 도입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제시한다. 교과과정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창업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과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의 창업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한다. 과정설계의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개발된 설문지를 활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특정 학문의 근간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 학부과정에서의 창업교육 교과과정의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은 배제하고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며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창업교육의 개념, 창업교육에 관한 학자들의 창업에 대한 관점, 강조점, 범위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학 창업교육의 교과과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둘째, 현재 국내의 대학 창업교육현황과 국내의 대학원의 창업교육 현황을 분석했다. 창업교육 현황은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창업교육 커리큘럼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지 개발에 활용된다.

셋째,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포커스 그룹은 연구자 그룹과 실무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한다.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설문 조사를 토대로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창업교육이 단계별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며, 학문적 체계의 기본체계라 할 수 있는 대학 학부과정의 창업교육 교과과정을 제시한다. 교과과정은 공통기초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대학의 전략적 목표, 창업 교육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해 대학에 적합한 창업교육 교과과정 설계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업교육의 개념과 현황

창업교육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사업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며, 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가 창업교육을 위와 같이 정의한 이유는 창업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참가자의 창업 준비단계에 따라, 계획사업에 따라 교육내용, 교수방법 등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9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IMF를 경험하면서 퇴직자가 급증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실업자의 증가로 창업이 취업의 대안으로 자리 잡으면서 창업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예비창업자 중심의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이제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소상공인진흥원, 각 지방자치단체, 창업관련 협회 및 민간 교육기관 등은 예비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창업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교육 내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창업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대학은 창업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노동부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관련 과목을 급속하게 개설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대학은 학부 과정에 창업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5개 창업대학원이 석사 과정으로 창업학 컨설팅 등 세부 전공을 개설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창업학 박사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어 창업학은 본격적으로 독립학문으로서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 창업교육의 역사가 일천하여 교육과정의 개발도 미흡하고, 교수

인력이나 교수방법, 교재개발 등도 부족해 체계적인 창업 교육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2.2 창업의 교수가능성과 학문정당성

국내의 경우 창업학에 대한 정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학문의 대상으로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12]. 창업학의 학문 영역으로의 학문 정당성과 창업학의 교수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교육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시도한 조병주의 연구는 창업의 교수가능성과 학문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7]. 창업가는 교육을 통해서 양성될 수 있고, 창업학은 학문으로서 정당성이 있다. 창업 교육의 가능성과 창업학의 학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이유는 창업가는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 국내외의 많은 대학이 창업학을 교육과목 및 연구 대상으로 수용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과 연구자는 창업의 교수 가능성과 학문 가능성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 개설된 창업 교육은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실제 경험을 창업자에게 교육시키고, 창업활동을 촉진하게 하며,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나의 분야가 학문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의 지식의 발전과 기존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창업학은 교육을 통하여 창업가의 지식을 신장시키고 있고, 창업가의 경험을 학문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인근 분야의 이론을 도입하여 창업분야의 이론과 통합하여 창업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있다. 창업학은 상당한 정도의 이론을 정립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세분화된 기능 중심의 경영지식을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고 있고, 창업가의 창업 성공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창업학의 공헌은 순환적으로 창업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어서 학문 정당성이 있다.

2.3 창업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

대학 학부과정의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서는 창업의 교육적 요소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업의 교육적 요소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대표적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10].

창업교육으로 세계 제일의 명성을 가진 Babson College의 창업교육 체계를 잡은 Ronstadt는 체험중심의 비정형적 자유형의 교과과정 중심의 New School개념을 제시하고 있다[15].

McMullan & Long은 Growth Venture Position을 바탕

으로 전략적 전략적 독창성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McMullan & Long은 캐나다 제일의 창업교육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호주 대학에 학위과정을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14].

창업 교육 분야를 체계화하고 활성화한 최고의 공헌자로 인정받고 있는 Vesper는 창업을 start-up position으로 제시하고 있다[17].

Shapero는 창업은 개인의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기업가적 사건(entrepreneurial event)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16].

2.3.1 Ronstadt[15]

Ronstadt는 낡은 관점에서의 학교(Old School)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학교(New School)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창업교육은 창업에 경험이 있는 성공 창업자의 창업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창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제시함으로써 창업동기를 유발하고,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Ronstadt는 종래의 낡은 학교의 개념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창업 성공은 과단성 있는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석적인 사고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Ronstadt는 성공한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의 기질, 창업가의 경험, 창업 시기 및 창업 목적 등을 분석한 결과 광범위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창업의 성공은 창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Ronstadt는 창업교육은 창업가를 육성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창업교육을 직업교육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창업 교육을 받는 학생을 잠재적인 창업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 연구자는 창업 교육의 교과과정이 정형적인 학습 방법과 체험적 학습 방법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Ronstadt가 주장한 순차적인 학습이란 교실에서의 구조화된 강의(structured lecture)를 통해 창업에 관계된 사실 및 개념(facts and concepts)을 체득하고, 비정형적인 체험적 학습으로 교육과정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형적 체험 학습이란 실습 중심의 학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순차적 학습 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교과과정은 학생이 정형적인 과목을 먼저 학습하고, 비정형적인 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3.2 McMullan & Long[14]

McMullan & Long은 창업자의 창업행위를 새로운 사

업을 창조하는 행위와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전략을 구사하여 생존능력을 갖출 때 까지 성장시키는 일련의 활동 등을 포함하는 성장벤처포지션(Growth Venture Posi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McMullan & Long은 전략성과 창조성을 강조하였고, 창업교육과정은 새로운 사업의 탄생 과정과 성장사업개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창업교육과정은 창업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 위험부담, 사업경영 능력 및 창조성과 혁신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McMullan & Long은 창업기초과목이 포함해야 할 주제로 창업 동기, 창업이론의 역사적 연구, 전략적 사업개발, 신사업 개발, 창조성, 창업의 도전적 문제, 창업에 필요한 도구와 재능, 전략의 탐색, 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사업평가, 주제별 사례 등을 들었다.

2.3.3 Vesper[17]

Vesper는 창업을 사업 시작단계(start-up)로 국한시켰다. Vesper는 다양한 창업 사례의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에는 많은 다양성이 있지만, 반복적이며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Vesper는 성공적인 창업을 관찰하여 도출한 지식 및 기술(knowledge and skill)을 창업교육에 있어서 최우선 교육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Vesper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창업교육과정은 창업과 관련된 4가지의 지식습득과 습득된 지식을 실제적으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Vesper가 제시한 창업에 필요한 4가지의 우선적인 지식 및 기술은 일반적인 사업지식, 일반적인 사업지식에서 창업과 관련된 일반 창업지식, 창업기회와 관련된 특정 지식 및 창업기회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창업관련 특정지식 등이다.

2.3.4 Shapero[16]

Shapero는 기존의 창업교육을 담당하던 학자들이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창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는 달리 기업가적 사건(Entrepreneurial Event)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기초로 창업교육에 관한 과목을 설계하였다. 창업이라는 사건의 발생은 여러 가지의 직접적인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창업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

Shapero는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인의 해고 등 정상과도에서 탈락되어 실망적인 상황이 전개될 때 창업

을 하는 부정적 선택(negative displacement) 요인이다. 둘째, 졸업 직후, 군제대 등의 과도기적 공백 상태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과도기적 공백(transitional blank) 요인이다. 셋째, 동업제의 등의 긍정적 유인에 의해 창업을 시도하는 적극적 유인(positive pull) 이다.

Shapero는 창업을 발생시키는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개인적 변수로 창업욕구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desirability)과 성공가능성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feasibility)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Shapero는 창업사건은 개인의 외적인 요인인 3가지의 환경요인과 내적인 요인인 2가지의 인식이 집합적으로 작용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Shapero는 기업가적 행위를 자극하는 외적인 요인을 창업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 기존의 창업 교육이 주목하지 않은 외적 요인을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3. 국내의 창업교육 현황

3.1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

국내 최초의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과정은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부의 교과과정이다.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부는 중소기업학 전공과 벤처창업학 전공으로 구성되며, 기존 경영학이 다루지 않은 중소기업 창업과 경영현장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8].

국내 대학의 창업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중에서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과정의 입수가 가능한 184개 4년제 대학에 한정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10]. 전체 표본의 40.1%인 75개 대학에 창업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1과목 개설된 학교가 47개 대학교(62.7%), 2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18개 대학교(24%), 3과목 이상 개설한 학교가 10개 대학교(13.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설된 교과목의 현황을 분석하면, 벤처창업론, 중소기업 창업론, 창업론, 창업과 경영, 창업실무, 창업일반 등 창업에 대한 가이더적인 성격의 교양강좌로 개설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화된 창업교과목은 미흡하고 강의방식도 단순한 강의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별로 개설된 창업관련 과목 개설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2]. 우리나라 대학에서 정규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창업강좌 현황은 164개 대학에서 창업강좌가 운영되어지며 그 중 1/5 정도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론, 중소기업경영론, 벤처

창업론, 벤처경영론, 창업론, 창업경영론, 창업실무 등의 기초적 과목이 86.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 비즈니스 창업, 소자본창업, 소호창업 등의 분야별 창업강좌가 12.8%를 차지했다. 나머지 1%는 CEO 특강, 산학특강 등 특강과목으로 개설되었다.

국내의 대학교 창업교과의 특징은 개설된 창업 교과목이 창업기초 과목 위주로 되어 있으나 창업관련 과목의 개설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개설과목 역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대학의 창업 교육은 교양으로서의 창업 교육에서 점차 직업준비 과정으로서 창업교육으로 전이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Rondstadt가 주창한 직업획득 과정으로서 창업교육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3.2 국외 대학의 창업 교육 현황

본 연구는 창업 교육 현황을 미국을 중심으로 창업을 특화시킨 대학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창업과목을 특화시킨 대표적 대학인 Babson College, 창업교육 분야에 특화해 성공을 거두고 있는 Wichita State University, Baylor University의 교과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2.1 Babson College

Babson College는 U.S. News & World Report(2009)의 미국 우수 대학 순위 발표에서 창업학 분야에서 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이 모두 1위를 차지하였다[23]. Babson College는 창업학 분야에서 학부 프로그램은 12년 연속, MBA 프로그램은 16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20].

Babson College의 학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

[표 1] Babson College 창업교육 프로그램

구분	과목
필수1	- Entrepreneurship and Ventures
필수2 (택1) (전공선택에 해당)	- Financing Entrepreneurial Ventures and the Business Plan - Managing a Growing Business
필수3 (택2) (전공선택에 해당)	- Financing Entrepreneurial Ventures and the Business Plan(상기 필수과목을 수강치 않은 경우) - Family Business Management - Managing a Growing Business(상기 필수과목을 수강치 않은 경우) - Venture Growth Strategies(상기 필수과목을 수강치 않은 경우) - Entrepreneurship in Latin Amer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 Entrepreneurship Management - Value Selling for the Entrepreneur - Social Entrepreneurship by Design - Living the Entrepreneurial Experience - Raising Money: VCs, Angels and Incubators - Family Enterprises - Real Time Case Study - The Ultimate Entrepreneurial Challenge - Marketing for Entrepreneurs - Family as Entrepreneur - The Observational Entrepreneur From Obstacle to Opportunity - Hi-Tech Entrepreneurship: Assessing Opportunities and Viability of Hi-Tech Startups or Products
과목은 제공되나 필수적이지는 않음. (자유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ercial Law - Marketing Communications - Management Communications - Managing Contemporary Ethical Issues - Marketing and Developing New Products - Accomplishing Strategy - Negotiations - Money, Banking and the Economy -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and the Market Economy

Babson College의 창업교과과정은 Ronstadt가 강조하는 체험적 학습방법에 따른 New School 관점, McMullan & Long의 전략과 창조성, Shaper의 기업가적 사건(entrepreneurial event) 관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교과과정을 설계한 것으로 분석된다. Babson College는 우수한 교육연구 지원시설과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강의와 연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교육지원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교육을 통해 주어지는 창업지식이 아니라 자기발견학습, 사례연구 및 현장경험을 통한 현장감 있는 산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3.2.2 Wichita State University

캔자스 주에 위치한 Wichita State Univ.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창업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21].

[표 2] Wichita State Univ. 창업교육 프로그램

구분	과목
Introductory Course	-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3)
필수 (12학점)	- The Entrepreneurial Experience(3) - New Venture Feasibility Analysis(3) - Entrepreneurial Finance(3) - Growing and Managing an Entrepreneurial Firm(3) - Developing a Successful Business Plan(3)
선택 (9학점)	- Accounting for Decision Making and Control(3) - Law of Business Associations(3) - Cooperative Education(1~3) - Independent Study in Entrepreneurship(1~5)
자유 선택	- Internship in Entrepreneurship(1~3) - Technology Entrepreneurship(3) - Selling and Sales Force Management(3) - Short-term Financial Management(3) - Special Topics in Entrepreneurship(3) - Project SIFE (Students in Free Enterprise) - Financial Management II (3) - Fundamental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3) - Leading and Motivating(3) - Retail Management(3) - International Marketing(3) - Promotion Management(3) - Principles of Real Estate(3)

Wichita State Univ.의 창업교과과정은 Babson College와 유사해 Ronstadt가 강조하는 체험적 학습방법에 따른 New School 관점, McMullan & Long의 전략과 창조성, Shapero의 기업가적 사건(entrepreneurial event) 관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교과과정을 설계한 것으로 분석된다.

3.2.3 Baylor University

텍사스 주에 위치한 Baylor 대학은 창업분야의 대표적 잡지인 Entrepreneur지에서 발표하는 2008년 Entrepreneurship 분야 우수 대학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했다. Baylor 대학의 창업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2].

[표 3] Baylor Univ. 창업교육 프로그램

구분	과목
Introductory Course	- Starting and Managing a Business
필수 1	- Entrepreneurial Process - Entrepreneurial Finance - Entrepreneurial Business Plan
필수 2 (택1)	- Managing the Family Business - Corporate Entrepreneurship: Initiating and Sustaining Innovations - Social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필수 3 (택1)	- Technology Entrepreneurship - Internship in Business -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ship in the European Union - Technology Entrepreneurship in Asia - Franchising: Franchise & Franchisor Perspectives - Social Entrepreneurship: Micro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선택	- Special Studies in Entrepreneurship - International Technology Entrepreneurship Summer Study Abroad - Entrepreneurship Internship

Baylor 대학의 창업교과과정은 창업을 사업 시작단계(start-up)로 국한한 베스퍼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되, Ronstadt가 강조하는 체험적 학습방법에 따른 New School 관점을 결합해 교과과정을 설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Baylor 대학은 다양한 분야별 창업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상기 분석대상 3개 대학교의 창업교육 교과과정은 체험적 학습방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3.3 국내외 대학원 창업교육 현황

대학의 체계적인 창업교육 교과과정의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고, 각 학교의 실정에 맞춰 개설 가능한 소수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업학에 대해서 학부의 교과과정과 비교할 때 체계적으로 교과과정이 개설된 대학원 프로그램을 분석한다.

창업학 석사과정이 개설된 국내 5개 대학원과 미국의 10개 대학원의 창업관련 교과목을 전수 조사하여 창업학 교과과정을 분류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국내 대학원은 사례분석 및 세미나의 비중이 미국 대학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내 대학원은 2004년 이후 개설되어 운영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기의 대학원의 연구 방향 및 교과 내용은 창업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발굴·벤치마킹하는데 주력하였다. 반면에 미국 대학원은 창업에 관련된 이슈나 창업영역의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족/소수민족, 교육, 비영리 창업, 여성 창업 등 분야별 창업에 관련된 교과목의 비중이 높다.

창업 교과과정 분류를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동 분류는 대분류를 먼저 분류하고, 중분류로 과목을 분류하고 있다. 동 분류는 교과목의 성격 및 내용의 범위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창업교육의 교과목에 대한 분류는 조병주[6]가 제안한 창업교과과정 통합모형과 한정화와 이명자[11]의 교과목 분류기준을 기초로 하였고, 경영학과와 교육학과 교수 등 전문가 4인이 참여하여 3회에 걸친 교과목 확인작업을 거쳤다. 또한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총 교과목 수 296개를 6개로 대분류하였고, 다시 각 대분류별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시 34개의 분야로 중분류하였다.

[표 4] 창업학 교과과정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과목수)
창업개론	경영학원론(7), 연구조사방법론(2), 벤치/창업론(11), 컨설팅(6)
환경분석 및 창업준비	환경분석(5), 사업아이템(9), 사업계획서(11), 벤처키피탈(10), 창업재무/회계(11), 창업자원/입지(6), 법률(8), 인수합병(7)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15), 리더십(6), 문화/조직변화(성장)관리(11), 혁신적 사고(10)
창업경영 및 전략	일반관리(9), 마케팅(29), 인사/조직(10), 재무/회계(7), 전략(8), 정보/기술(9)
분야별 창업	가족/소수민족(9), 과학/기술(10), 교육/네트워크/문화영상/유통/부동산/전문서비스/의료(9), 비영리(7), 프랜차이즈(4), e비즈니스(4)
사례연구 및 세미나	실습/연수(9), 창업/경영사례/특강(17), 창업경영세미나/프로젝트(14), 컨설팅사례/세미나(6)

국내 대학원의 창업학 교육의 특성은 사례 및 세미나 중심의 개별 기업의 창업전략 등을 교수하는 초기 창업 교육에 중심을 두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창업학을 성장 발달시켜 창업학 이론을 특수한 상황에 적용시켜 창업 이론을 실천 수준으로 끌어올려 창업 교과 내용의 성숙도가 높다 하겠다. 즉 미국의 창업 교과목은 초기의 개별 기업의 사례를 이론화시키고, 이론을 특수 상황에 접목시켜 발전시키는 성숙단계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4.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창업교과과정 개발을 위해 설문을 작성하고,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창업교과과정을 도출한다.

유효한 설문을 위해서는 설문 대상자가 창업학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창업학이 도입 초기인 관계로 창업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설문 대상자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포커스 그룹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개발한다. 첫째, 3.3에서 제시한 국내의 대학원 창업학 교과목 분류표를 기준으로 교과목을 도출한다. 둘째, 국외의 창업학 교과목을 도출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의 개설 과목을 조사 분석한다. 셋째, 국내의 대학원 창업학 교과목 분류표와 미국 대학의 교과목 리스트를 비교 분석하여 총 37개의 교과목 리스트를 작성한다. 넷째, 학부과정의 교과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의 교과과정이 공통기초과정,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주시한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정에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을 공통기초 교과목, 전공필수 교과목,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분한다. 다섯째, 교과목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설문지는 설문 응답자가 선정한 개별 전공필수 교과목 및 개별 전공선택 교과목에 적합한 교수법을 조사한다.

본 연구가 도출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과목의 중요성을 측정하고, 교과목의 교수법 특성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교과목의 중요성을 2가지로 측정한다. 첫째, 개별 교과목의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별 교과목의 중요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한다. 둘째, 개별 교과목 측정과 별개로 본 연구는 교과목을 전공필수 교과목, 전공선택 교과목을 각각 5개씩 선택하게 한다. 교과목의 교수법 측정을 위해서 본 연구는 전공 필수 교과목, 전공 선택 교과목에 적합한 교수법을 설문 조사를 통해서 식별한다.

본 연구는 설문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특정한 주제와 관련

된 전문가 집단으로 해당 분야의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된 임의의 집단을 의미한다[1,13]. 본 연구가 포커스 그룹을 선정한 목적은 본 연구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문 응답자가 창업학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대학의 정규창업교과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한 수준의 창업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설문 응답자는 유효성이 있는 설문 응답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유효성 있는 응답이 가능한 설문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을 대학에서 창업학 및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진으로 구성된 연구자 그룹과 국내 5개 창업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자 중 현업에서 창업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사 및 컨설턴트로 구성된 실무 전문가 그룹 등 두 개의 그룹으로 구성했다. 포커스 그룹을 2개의 그룹으로 구성한 이유는 연구자 그룹과 실무 전문가 그룹은 창업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창업학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의 방향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 그룹은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교육을 강조할 수 있는 반면, 실무 전문가 그룹은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창업교육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창업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적인 특성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 그룹은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강의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로 구성하였고, 실무 전문가 그룹은 창업대학원을 졸업하고, 창업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강사 및 컨설턴트로 구성한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학 도입 초기 단계이고 전문성을 가진 설문 대상자 수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통한 일반화 방법이 아닌 탐색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된 연구자 그룹과 실무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화를 통하여 설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e-mail을 통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연구자 그룹은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21부를 회수하였고, 실무 전문가의 경우 55부를 배부해 23부를 회수하였다. 설문 응답율은 연구자 그룹과 실무 전문가 그룹은 각각 60%, 42% 등이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의 대학교과과정 설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내용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분석 결과는 개별 창업 교과목의 중요도, 필수 교과목 선정, 선택 교과목 선정, 필수 및 선택 교과목의 교수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설문 결과는 각 대학의 상황과 특성화 방향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다.

5. 연구결과

5.1 창업 교과목의 중요도 분석

[표 5]는 설문 응답자 전체, 연구자 그룹, 실무 전문가 그룹의 각 과목별 중요성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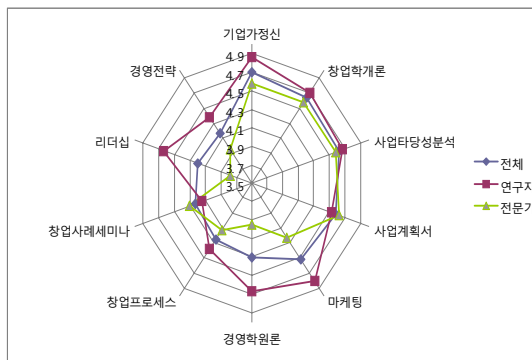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창업 관련 지식과 기술관련 과목인 기업가정신, 창업학개론,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 등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마케팅, 경영학원론 등의 경영학 기본과목의 중요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표 5] 과목별 중요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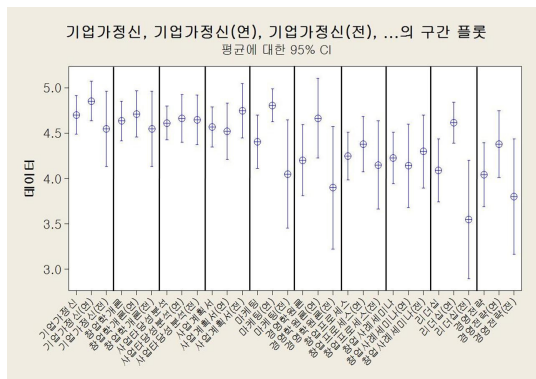
전체 순위	과목명	전체		연구자		실무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기업가정신	4.70	.701	4.86	.478	4.57	.843
2	창업학개론	4.64	.718	4.71	.561	4.57	.843
3	사업타당성분석	4.61	.618	4.67	.577	4.57	.662
4	사업계획서	4.57	.728	4.52	.680	4.61	.783
5	마케팅	4.51	.703	4.81	.402	4.23	.813
6	경영학원론	4.30	1.124	4.67	.966	3.95	1.174
7	창업프로세스	4.25	.866	4.38	.669	4.13	1.014
8	창업사례세미나	4.23	.937	4.14	1.014	4.30	.876
9	리더십	4.19	.958	4.62	.498	3.77	1.110
10	경영전략	4.16	1.022	4.38	.805	3.95	1.174
11	벤처창업론	4.11	.895	4.33	.856	3.91	.900
11	MSB	4.11	.841	4.10	.768	4.13	.920
13	CSB	4.07	.900	3.95	.865	4.17	.937
13	CE	4.07	.846	4.05	.805	4.09	.900
13	환경분석	4.07	.728	3.95	.740	4.17	.717
16	창업재무 및 회계	4.05	.834	4.00	.894	4.09	.793
17	재무회계	4.02	.988	4.52	.680	3.55	1.011
18	SE	3.93	.900	3.81	.873	4.04	.928
19	혁신적사고	3.91	1.074	4.14	.854	3.70	1.222
20	인턴십 및 코칭	3.89	1.166	3.67	1.197	4.09	1.125
21	창업지원관리	3.77	1.008	3.86	.964	3.70	1.063
21	TE	3.77	.961	3.81	.873	3.74	1.054
23	e비즈니스	3.75	.943	3.81	.928	3.70	.974
24	프랜차이즈	3.73	.758	3.81	.814	3.65	.714
25	인사조직	3.70	1.103	4.38	.805	3.05	.950
26	창업법규	3.68	.883	3.71	.717	3.65	1.027
27	입지분석	3.66	.914	3.76	.889	3.57	.945
28	IE	3.61	.993	3.29	1.056	3.91	.848
28	벤처캐피탈	3.61	1.017	3.62	1.024	3.61	1.033
30	컨설팅방법론	3.59	1.168	3.33	1.197	3.83	1.114
31	문화조직변화관리	3.56	1.098	3.76	.889	3.36	1.255
32	정보기술	3.51	1.121	3.90	.831	3.14	1.246
33	연구조사방법론	3.50	1.267	3.43	1.207	3.57	1.343
33	MFB	3.50	.928	3.52	.928	3.48	.947
35	RM	3.48	.821	3.43	.870	3.52	.790
36	인수합병	3.18	.971	3.05	.865	3.30	1.063
37	일반관리	3.00	.926	3.14	.854	2.86	.990

MSB: Management of Small Business
 SE: Social Entrepreneurship
 CE: Corporate Entrepreneurship
 MFB: Managing the Family Business
 RM: Retail Management
 TE: Technology Entrepreneurship
 I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CSB: Communication Strategy in Business

설문 결과는 창업학의 학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경영학의 기초 지식이 창업 교육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창업학과 경영학의 밀접한 관계는 전통적 경영학 과목과 창업학을 어떻게 차별화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준다. 창업학과 전통적 경영학 과목들과의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차별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7,18].



[그림 1] 포커스 그룹별 중요도 평균 비교



[그림 2] 포커스 그룹별 95% 신뢰구간 비교

[그림 1]은 상위 10과목의 평균 비교이며, [그림 2]는 상위 10과목의 각 과목별 평균값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는 전체(연구자 그룹과 실무 전문가 그룹)를 포함한 평균값, 연구자 그룹의 평균값, 실무 전문가 그룹의 평균값을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이 각 과목에 대한 단순한 평균 값을 보여주는 데 반해, [그림 2]는 [그림 1]에 제시된 중요과목의 평균값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비교해 나타내 준다. [그림 2]는 각 과목별로 전체, 연구자 그룹, 전문가 그룹의 각 평균 값에 대한 분포를 보여주고,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해

준다. 전체 및 그룹별 분포가 상이하고 분포구간이 넓은 과목의 경우에는 과목 채택 시 교과내용 등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자 그룹은 실무 전문가 그룹과 비교할 때, 기업가 정신, 창업학개론, 사업타당성 분석 등의 창업 관련 과목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영학원론, 마케팅, 리더십 등의 전통적 경영학 과목의 개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 전문가 그룹은 사업계획서, 창업사례세미나 등의 창업지식과 스킬관련 과목의 개설 필요성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창업학이 태동기 시점임을 고려할 때, 연구자 그룹의 구성원이 대부분 경영학 전공 교수이거나, 경영학과나 관련학과가 창업학 강좌를 주로 개설하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실무 전문가 그룹은 창업현장에서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강의 또는 컨설팅을 수행함에 따라 창업지식과 스킬에 관한 과목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연구자 그룹에 비해 실무 전문가 그룹의 신뢰구간이 넓게 나타난 것은 응답자의 경력, 전문가의 강의 또는 컨설팅 영역의 다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2 창업학 필수과목 중요도 및 교수법 분석

[표 6], [표 7], [표 8]은 설문에 예시된 37개의 과목 중 개설 필요성이 있는 필수과목 5과목과 동 교과목에 적합한 교수법에 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6]은 연구자 그룹과 실무 전문가 그룹을 합친 결과값의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7]은 연구자 그룹, [표 8]은 실무 전문가 그룹이 창업학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 응답의 빈도값이다.

중요도가 높은 주요과목을 나타내기 위해 [표 6]은 빈도 수가 7 이상인 과목을, [표 7]과 [표 8]은 빈도 수가 5 이상인 과목을 포함했다.

연구자 그룹과 실무 전문가 그룹을 통합한 빈도값을 분석하면, 기업가정신, 창업학개론,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 창업프로세스 등 창업 과목 등이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업 교과목 외에 경영학원론과 마케팅의 경영학 기본과목이 필수 교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표 6] 필수과목의 중요도 순위 및 교수법(전체)

전체 순위	과목명	빈도	퍼센트 (%)	교수법
1	기업가정신	33	15.3	강의&Case(15), 강의(7), Case(6), 기타(5)
2	창업학개론	29	13.5	강의(15), 강의&Case(12), 기타(2)
3	사업계획서	24	11.2	강의&Case&실습(10), 실습(5), 강의&실습(3), 기타(6)
4	경영학원론	21	9.8	강의(12), 강의&Case(6), 기타(3)
5	사업타당성분석	19	8.8	강의&Case&실습(5), 강의(4), 강의&Case(4), Case(3), 기타(3)
6	마케팅	17	7.9	강의&Case(8), 강의(4), 기타(5)
7	창업프로세스	10	4.7	강의&Case(3), 강의(2), 강의&Case&실습(2), 기타(3)
8	벤처창업론	7	3.3	강의&Case(5), 강의(2)
기 타		55	25.5	* 기타과목: 리더십(5), 창업 제 무 및 회계(5), 창업사례 세미나 합 계
합 계		215	100.0	(5), 경영전략(4) 등

McMullan & Long의 Growth Venture Position 관점에서 필수 과목의 중요성을 분석하면, 창업 필수 교과목으로 경영학 기본 과목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McMullan & Long은 창업을 창업시점과 성장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였으므로 창업과 경영학 과목을 창업 교육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연구자 그룹과 실무 전문가 그룹은 빈도수의 차이는 있으나 필수과목으로 선택한 과목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5], [그림 1], [그림 2]에서 나타난 연구자 그룹과 실무 전문가 그룹의 과목 개설 필요성에 대한 과목별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그룹과 실무 전문가 그룹의 필수과목에 대한 유사한 인식은 필수 과목의 순위 결과의 높은 신뢰성을 보여 주고 있다.

교수법은 일방적 강의보다는 강의, Case Study, 실습 등의 병행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의 목적보다는 창업활동을 활발하게 일으키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창업 성공률을 높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창업 교육은 강의위주의 교수법으로는 교육효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의 대학들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실험을 통해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8]. 또한 교수법은 수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과도 관련성이 있다. 즉 다양한 교수법은 학생들의 수강 준비정도 및 수강능력 뿐만 아니라 교수진의 강의능력 등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수법의 선택은 교재개발, 교수진과 학생의 준비정도 및 수용 능력 등도 고려해야 한다.

[표 7] 연구자 그룹의 필수과목 순위 및 교수법

전체 순위	과목명	빈도	퍼센트 (%)	교수법
1	기업가정신	16	16.0	강의&Case(9), 강의(3), Case(3), 기타(1)
2	창업학개론	14	14.0	강의&Case(9), 강의(5)
3	경영학원론	12	12.0	강의&Case(4), 강의(7), 기타(1)
4	마케팅	11	11.0	강의&Case(6), 강의(2), 기타(3)
5	사업타당성분석	9	9.0	강의&Case(4), Case(2), 강의&Case&실습(2), 기타(1)
5	사업계획서	9	9.0	강의&Case&실습(5), 실습(2), 기타(2)
7	창업프로세스	5	5.0	강의&Case(2), 기타(3)
기 타		24	24.0	* 기타과목: 벤처창업론(4), 제 무회계(3), 리더십(3), 인사조 직(2) 등
합 계		100	100.0	

[표 8] 실무 전문가 그룹의 필수과목 순위 및 교수법

전체 순위	과목명	빈도	퍼센트 (%)	교수법
1	기업가정신	17	14.8	강의&Case(6), 강의(4), Case(3), 기타(4)
2	창업학개론	15	13.0	강의(10), 강의(3), 기타(2)
2	사업계획서	15	13.0	강의(10), 강의&Case(3), 기타(2)
4	사업타당성분석	10	8.7	강의(4), 강의&Case&실습(3), 기타(3)
5	경영학원론	9	7.8	강의(5), 강의&Case(2), 기타(2)
6	마케팅	6	5.2	강의(2), 강의&Case(2), 기타(2)
7	창업프로세스	5	4.4	강의(2), 강의&Case(1), 기타(2)
기 타		38	33.1	* 기타과목: 벤처창업론(3), 창 업재무 및 회계(3), 창 업법규 (3), 혁신적 사고 (3) 등
합 계		115	100.0	

5.3 선택과목 중요도 및 교수법 분석

[표 9], [표 10], [표 11]은 설문 37개의 과목 중 개설 필요성이 있는 선택 과목 5과목과 적합한 교수법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9]는 연구자 그룹과 실무 전문가 그룹 전체의 결과이며, [표 10]은 연구자 그룹, [표 11]은 실무 전문가 그룹의 결과이다.

중요도가 높은 주요과목을 나타내기 위해 [표 9]는 빈도 수가 8 이상인 과목을, [표 11]은 빈도 수가 5 이상인 과목을 포함했다.

연구자 그룹과 실무 전문가 그룹이 전체가 응답한 선택 과목은 스몰비즈니스경영, 프랜차이즈, 사회적 창업 등으로, 분야별 창업 과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과정 설계시에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 등이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동 교과목은 반드시

시 선택과목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 교과목은 창업 교과과정을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한 과목임을 알 수 있다.

[표 9] 선택과목의 중요도 순위 및 교수법(전체)

전체 순위	과목명	빈도	퍼센트 (%)	교수법
1	MSB	13	6.2	강의&Case(6), 강의(3), 기타(2)
2	창업사례세미나	12	5.7	Case(4), Case&실습(3), 강의&Case(2), 기타(3)
3	프랜차이즈	11	5.2	강의&Case(4), 강의(3), Case&실습(2), 기타(2)
4	사업타당성분석	10	4.7	강의&Case&실습(4), 강의(2), 강의&실습(2), 기타(2)
4	SE	10	4.7	강의&Case(4), 강의(4), 기타(2)
6	사업계획서	9	4.2	강의&실습(5), Case(2), 기타(2)
6	입지분석	9	4.2	강의&실습(3), 강의&Case&실습(2), 기타(4)
6	인턴십 및 코칭	9	4.2	Case&실습(4), 실습(4), 기타(1)
9	창업재무 및 회계	8	3.8	강의&Case&실습(2), 강의(2), 기타(4)
기 타		121	57.1	* 기타과목: 마케팅(7), 인사조직(7), 창업프로세스(7), e비즈니스(7), corporate entrepreneurship (7) 등
합 계		212	100.0	

교수법은 필수과목과 같이 일방적 강의보다는 강의, Case Study, 실습 등의 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필수과목에 비해 Case Study, 실습 등의 비중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택과목의 교수법이 필수과목에 비해 보다 체험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창업스킬 관련 과목과 분야별 창업과목이 다수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10] 연구자 그룹의 선택과목 순위 및 교수법

전체 순위	과목명	빈도	퍼센트 (%)	교수법
1	프랜차이즈	6	6.0	강의&Case(3), Case&실습(2), 기타(1)
1	MSB	6	6.0	강의&Case(3), 기타(3)
1	창업사례세미나	6	6.0	강의&Case(2), Case&실습(2), 기타(2)
4	인사조직	5	5.0	강의&Case(2), 강의(2), 기타(1)
4	벤처창업론	5	5.0	강의&Case(4), 기타(1)
4	사업타당성분석	5	5.0	강의&Case&실습(3), 기타(2)
4	창업프로세스	5	5.0	강의&Case(3), 기타(2)
4	창업재무 및 회계	5	5.0	강의(1), 강의&Case&실습(1), 기타(3)
기 타		57	57.0	*기타과목: 마케팅(4), 리더십(4), 사업계획서(4), 창업자원관리(4), 입지분석(3) 등
합 계		100	100.0	

선택 과목의 경우, 실무자 그룹은 연구자 그룹과 비교 시 Social Entrepreneurship, Management of Small Business, Corporate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등의 창업 분야별 과목의 개설 필요성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1] 실무 전문가 그룹의 선택 과목 순위 및 교수법

전체 순위	과목명	빈도	퍼센트 (%)	교수법
1	SE	8	7.1	강의(4), 강의&Case(3), 기타(1)
2	MSB	7	6.3	강의&Case(3), 강의(2), 기타(2)
3	입지분석	6	5.3	강의&실습(2), 강의&Case&실습(2), 기타(2)
3	창업사례세미나	6	5.3	Case(2), Case&실습(1), 기타(3)
3	인턴십 및 코칭	6	5.3	실습(3), Case&실습(2), 기타(1)
6	사업타당성분석	5	4.5	강의(2), 강의&실습(1), 기타(2)
6	사업계획서	5	4.5	강의&실습(4), Case(1)
6	프랜차이즈	5	4.5	강의(3), 강의&Case(1), 기타(1)
6	CE	5	4.5	강의(2), 강의&Case(2), 기타(1)
6	IE	5	4.5	강의(4), 강의&Case(1)
기 타		54	48.2	*기타과목: e비즈니스(4), Retail Management(4), 경영전략(3), 마케팅(3) 등
합 계		112	100.0	

6. 대학의 창업교과과정의 설계 방향

6.1 대학 과정의 창업교과과정 설계 방향

대학의 학부과정에서는 잠재적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창업 과목을 개설하되, 창업 과목의 범위를 Vesper의 Start-up 단계는 물론 창업기업이 충분한 자생력을 갖게 되는 McMullan & Long의 창업 관점인 성장진 입단계(Growth Venture Position)를 포함해야 한다. 즉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창업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속성인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사업경영능력, 창조성/혁신 등의 내용을 포괄해야 한다.

창업학 도입 초기인 관계로 체계적인 교과과정, 전임 교원, 교육 교재 등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대학 학부의 교육과정은 전공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창업기초과목인 공통기초과목과 전공영역(major area) 또는 집중영역(concentration area) 과목을 학교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의 일반적인 교과과정설계의 기본 체계를 준용해 창업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공통기초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6.1.1 공통기초과목

공통기초과목은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창업에 관심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것이다. 공통기초과목은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연구자 그룹과 전문가 그룹 모두에서 평균 4.5점 이상을 획득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창업학 개론, 기업가 정신,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 등이 될 수 있다. 특정과목의 선택여부는 교육 대상, 교육 목적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통기초과목의 내용은 창업과 관련한 기술적 내용보다는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창업가가 지녀야할 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6.1.2 전공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은 기업가정신, 창업학개론,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 창업프로세스 등의 창업관련 과목과 경영학원론, 마케팅 등의 경영학 기본과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설과목은 대상학과, 대상 학생의 전공범위, 전공학점 수 등을 고려해 필수과목의 수, 학년별 개설과목 및 수를 정하고, 과목의 개설 순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설과목의 우선 순위는 정신적 속성의 과목에서 기술적 속성의 과목 순으로 개설해야 한다. 즉 기업가 정신 - 창업학 개론 - 경영학원론 - 마케팅 - 사업타당성 분석 - 사업계획서의 - 창업프로세스 순으로 개설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6.1.3 전공선택과목

전공선택과목은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학업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되 전공선택과목과 학교 또는 학과의 특성화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Management of Small Business, 창업사례세미나, 프랜차이즈, Social Entrepreneurship, 인턴십 및 코칭, e비즈니스, Corporate Entrepreneurship 등의 창업분야별 과목 및 체험학습을 목적으로 한 과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 등이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지 못할 경우 전공선택과목으로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6.1.4 대학원 교과과정 설계 방향

대학원의 석, 박사과정은 창업학의 연구영역을 분류해 Management of Small Business, New Venture Creation, Corporate Entrepreneurship, Family Entrepreneurship, Social Entrepreneurship 등의 연구영역에 대한 전공분야

및 연구방법론을 포함해야 한다.

6.1.5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제언

상기한 교과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학교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해 특정 분야를 전략적으로 특화 육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미국 대학이외에도 공과대학에 개설해 창업 및 혁신분야에서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의 Swinburne 대학, 학생들이 종업원 20~200인 규모의 회사와 관련해 학업을 진행하는 임상교실(clinic class)을 운영해 특화하고 있는 캐나다의 Calgary 대학, 창업학에 있어 선도적인 경영대학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국의 London Business School (LBS), 스코틀랜드의 Sterling 대학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물적, 인적 인프라를 고려해 공통기초과목을 개발해 잠재적 창업가의 저변을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춰 적합한 학과에 중점영역(concentration area) 또는 전공영역(major area)으로 순차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학교의 상황에 맞춘 탄력적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베스퍼는 미국의 대학들이 처음에 기초과목 성격의 개론 과목 하나를 우선 개설하고, 이어서 일련의 과목을 연계시켜 나감으로써 중점영역(concentration area), 또는 전공영역(major area)으로, 나아가서는 석사수준의 학위과정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19].

베스퍼는 1985년 연구에서 한 가지 표준이 될 만한 기초과목을 하나 먼저 신설한 후 계속적으로 과목을 개설시키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후속과목들을 계속 개발하다가 보면 세분화가 심화되어 창업과목이 지녀야 할 특성이 약해지기 쉽다. 두 번째 문제는 세분화해서 과목을 계속 증가시키다 보면 전통적인 경영학 과목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점점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18]. 단 순히 기존의 경영학 과목에다 적당히 창업마케팅이나 창업재무, 창업조직론과 같이 하나의 접두어로서 창업을 생각하면 위험하다[6].

셋째, 창업교육의 효율적인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수요원의 확보, 교과목의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재개발, 교실 내에서의 수업 이외 창업경진대회, 우수한 창업아이템에 대한 창업자금의 지원과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외부 창업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구미제국의

창업교육현장에는 창업경험을 체험한(또는 창업중인) 교수가 강단에 서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7].

6.2 단계별 창업교육의 설계 방향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창업의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고,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및 대학원, 고등학교 등의 학교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 등 다양한 창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독립학문으로서의 창업학에 대한 입지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창업 교육이 하나의 '사회시스템'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창업은 취업 못지않게 직업으로서 경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Ronstadt의 관점을 고려할 때, 창업교육은 단계별로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학 과정 이외의 즉 고등학교 및 성인교육으로서의 창업 교육의 설계 방향을 살펴보자.

고등학교의 창업교육은 창업이 직업을 획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창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창업을 진로 선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창업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실시 학교 수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전 계열의 모든 학생들에게 소양 차원의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3].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창업교육은 창업을 Start-up 단계에 국한한 Vesper의 관점에 기반해 창업단계에서 필요한 Skill을 우선적 교육대상으로 하도록 한다.

7. 결론

창업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고, 창업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의 수 및 과목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설계는 미흡한 현실이다. 고등학교, 대학원의 석, 박사 과정이 개설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창업교육은 하나의 사회 시스템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창업교육 교과과정은 고등학교 창업교육부터 대학 및 대학원의 창업교육,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일반 창업교육까지를 연계한 설계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해 대학의 창업교육교과과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기초과목은 기업가정신, 창업학개론이 검토될 수 있으며, 대상 학생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공필수과목은 기업가정신, 창업학개론, 사업

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 창업프로세스 등의 창업관련 과목과 경영학원론, 마케팅 등의 경영학 기본과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셋째, 전공선택과목은 Management of Small Business, 창업사례세미나, 프랜차이즈, Social Entrepreneurship, 인턴십 및 코칭, e비즈니스, Corporate Entrepreneurship 등의 창업분야별 과목 및 체험학습을 목적으로 한 과목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교수법은 과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는 있으나 창업학의 속성상 단순 강의방식 보다는 강의, Case Study, 실습 등의 다양한 교수법의 결합, 교육 효과 제고 및 실제 창업으로의 연계 등을 지원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창업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통기초과목을 개발해 잠재적 창업가의 저변을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춰 적합한 학교에 중점영역(concentration area) 또는 전공영역(major area)으로 순차적으로 발전시켜야 나가되, 학교의 상황에 맞춘 탄력적 과정 운영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창업교육의 현황 분석에 머물렀던 것을 창업학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포커스 그룹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대학의 창업교육 교과과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유효성 있는 연구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응답 대상자가 창업학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대학의 정규창업교과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창업학이 도입 초기임에 따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대학에서 창업학 및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진으로 구성된 연구자 그룹과 국내 5개 창업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자 중 현업에서 창업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사 및 컨설턴트로 구성된 실무 전문가 그룹 등 두 개의 포커스 그룹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진행했고, 창업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과정설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그러나 아직은 창업학 과목에 대한 교수진, 교재개발이 미흡한 상태임에 따라 동일한 과목이라도 수업내용이 매우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교과과정을 구성하는 과목명의 제시에 그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교육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공통기초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제시된 각 과목의 교육목표, 주요 교육내용, 적합한 교수법, 기타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서 본 연구는 전문성을 보유한 포커스그룹을 연구자 그룹과 실무 전문가 그룹 이외 교육 수요자인 대학생, 성공한 창업가 및 실패한 창업가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Vesp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창업의 행위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관계되는냐에 따라 과목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창업행위와 교육 관련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강민아, 손주연, 김희정, “통합연구방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 연구: 지역보건정책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에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방법의 통합적 적용”, 한국행정정보, 제41권, 제4호, pp.415-437, 2007.
- [2] 김주미, 오상훈, 양재경,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2007.
- [3] 박윤희, “실업계 고등학교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직업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pp.83-110, 2004.
- [4] 반성식, “창업전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진주산업대 논문집 제42권, pp.129-147, 2003.
- [5] 이상문·장대성, “벤처창업 교육과 창업정신 행상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경영교육연구, 제7권 제1호 pp.7-25, 2004.
- [6] 조병주, “창업교육의 교과내용결정모형과 전공과정의 개발방향”, 한국중소기업회지, 제18권 제2호 pp. 157-184, 1996.
- [7] 조병주, “창업교육 : 교육과정 전개와 효과적 교수방법”,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 27-48, 1998.
- [8] 조형래, “새로운 창업교육의 방향”,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 49-74, 1998.
- [9] 주인중·박윤희·오영미,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체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요구분석”, 직업교육연구 제21권 제1호 pp. 169-181, 2002.
- [10] 한길석, “창업교육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47집, pp. 379-405, 2007.
- [11] 한정화·이명자, “창업교육실태와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5-26, 1998.
- [12] 한주희·고언정, “창업학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직업교육연구 제26권, 제2호. pp.105-131, 2007.
- [13] Krueger, Richard A.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1994.
- [14] McMullan, W. Ed and Wayne A. Long, *Developing New Ventures: The Entrepreneurial Option*, New York, N. Y.:Harcourt Brace Jovanovich, 1990.
- [15] Ronstadt, R,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pp.7-23, summer 1985.
- [16] Shapero, Albert and L. Sokol,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dited by Calvin A. Kent, Donald L. Sexton, and Karl H. Vesper, Englewood Gliffs, N. J.: Prentice-Hall, pp.72-87, 1982.
- [17] Vesper, K. H. and W. Ed McMull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from Courses to Degre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3, No.1, pp.7-14, 1988.
- [18] Vesper, K. H., *Entrepreneurship Education*, Babson College Center for Entrepreneurship Research, 1985.
- [19] Vesper, K. H., *Research on Education for Entrepreneurship in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p.327, 1982.
- [20] <http://www3.babson.edu>
- [21] <http://www.wichita.edu>
- [22] <http://www.baylor.edu>
- [23] <http://www.usnews.com>

목 영 두(Youngdu Mok)

[정회원]



- 2006년 8월 : 중앙대학교 창업 경영대학원 창업학 석사
- 2008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창업학과(박사과정)
- 2005년 4월 ~ 2008년 8월 :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부사장
- 2006년 9월 ~ 현재 : 소호진흥회 협회 부회장
- 2008년 9월 ~ 현재 : 한맥투자증권 상무

<관심분야>

창업교육, 스포비즈니스와 인큐베이팅, 사회적 창업, 시니어 창업

최 명 길(Myeonggil Choi)

[정회원]



- 1993년 2월 : 부산대학교 학사
- 1995년 3월 : 부산대학교 석사
- 2004년 9월 :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 1995년 9월 ~ 2000년 1월 : 국방 과학연구소 연구원
- 2000년 2월 ~ 2005년 8월 :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 2005년 9월 ~ 2008년 2월 : 인제 대학교 조교수
- 2008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창업정책, 기술창업, 보안성평가, 정보보호정책 및 관리